

현대무용 전공생의 전공만족,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이준모 전북대학교

이 연구는 현대무용 전공생의 전공만족,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전북, 대구지역의 무용전공 대학생들로서 총 199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처리는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3.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모델분석, 상관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인 교과수업만족, 전공인식만족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만족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인 교과수업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인식만족, 관계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무용 전공생의 특성에 맞는 중재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하여 원활하고 긍정적인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 현대무용 전공생, 전공만족,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 한국무용과학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이 3.8%를 넘어서고, 특히 청년(15세-29세) 실업률이 8%에 달함으로써 고용 정책과 '일자리 대책'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한영수, 2019. 1. 4.).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졸업 전에 정규직 취업에 성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공별로는 경상 계열이 13.2%로 가장 높았고 이공 계열(12.2%)과 예체능 계열(10.2%)이 그 뒤를 이었다(연합뉴스, 2019. 1. 21.). 이와 같이 '취업'은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대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은지, 2018. 2. 6.). 또한 대학생 10명 중 9명은 대학 진학시 진로와 직업을 고려해 입학했지만 스스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 2017. 3. 16.). 김하연(2018)은 2017년도 교육 통계 연구 센터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인용하면서, 무용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37.8%로 다른 계열보다도 낮은 양상을 보이는데, 무용학과의 취업률과 취업의 질 모두를 고려할 때 연구와 교육에 치중해 왔던 그간의 관점을 졸업생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진로'라는 영역에 분산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였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청년기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학업이나 직업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장래 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한 개인이 결정하는 진로의 방향은 그 개인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즉흥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백사인, 2011). 또한 대학에서도 진로결정이나 진로지도에 대한 중, 장기적 발전계획보다는 단순한 취업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결국 무용전공자는 대학 생활 동안 타 계열 졸업생에 비해 취업에 대한 준비를 덜 하게 되는 것이다(박현정, 2015).

진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닌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접착하고 의식주 그리고 마음까지 통틀어 앞으로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길(김규진, 2015), 한 개인이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고은희, 2017, 재인용)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진로를 생각하거나 정보를 알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진로준비행동이다(홍성주, 2016).

이주연(2011)은 대학 무용전공자들은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진로준비가 낮은 수준이며, 초·중등 단계의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공의 특성상 필연적인 공연으로 인해 작품의 구성과 연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타 전공에 비하여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발생한다(김지혜, 한광령, 김기섭, 김우석, 2011). 이에 무용전공자는 무용과에 입학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전공과 관련된 실기교육만을 받아왔고, 입학 후에도 전공과 부합되는 진로를 주로 찾게 되기 때문에 진로준비에 대한 행동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무용전공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가장 불안을 느끼는 문제는 무용전공자의 사회적 진출 및 진로가 타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무용예술에 대한 미성숙한 사회적 인식, 무용공연 시장의 비활성화, 열악한 지원 등 사회문화적, 구조적 한계로 진로에 대해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된다(이현정, 2010). 우리나라의 무용학과는 많은 무용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으나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많이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차이점은 국·시립 무용단원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취업 선택의 폭으로 인한 것이다(오연풍, 임종식, 양춘호, 2016). 현재 한국에서 직업무용단은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4개의 국립국악원무용단 그리고 19개의 시·도·군립무용단이 있다. 전공별로 보면 발레와 현대단체가 2개씩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무용전공 단체이다. 이와 같이 무용전공별 직업무용단의 숫자의 차이로 인해 발레와 현대무용전공자들의 진로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발레는 한국에서 어린이와 성인취미발레의 호황으로 진로의 폭이 넓은데 반해 현대무용전공자들의 진로는 막막한 실정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전공만족,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성취목표(박중길, 이환, 2003 이병훈, 2017 권혁진 2010 이승규, 2016 송정명, 유동현, 2018 김옥태, 이승희, 2011 김지혜, 한광령, 김기섭, 김우석, 2011) 등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관계를 구명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대부분 체육학분야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무용학분야에서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무용전공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주관적 경험인 전공만족과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세 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구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진로의 폭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현대무용 전공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인 전공만족과 대학생활적응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대학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만족은 인지와 정서의 복합체로서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하혜숙, 2000)이다. 전공만족은 개인이 속한 전공 안에서의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인의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 얻어지는 즐거운 정적인 상태나 태도, 가치, 신념 또는 욕구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장광원, 2012). 선행연구들은 전공만족이 장래의 진로와 직결되는 요소(이동재, 2004), 앞으로의 진로결정에 중대한 영향(Logue, 2005)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장선철(2003)은 전공 선택과 진로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에서 전공학과에 만족하는 대학생의 경우 불만족하는 학생들에 비해 진로에 대한 자기 생각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대학에서의 전공만족도는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의 존재를 전제하고, 대학은 직업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직업인을 배출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전공은 장래의 진로와 직결되는 요소이다(이동재, 2004). 어윤경(2011)은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졸업 후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중요하다고 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이란 심리적, 정서적인 다차원적인 현상의 적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공 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교수와의 상호작용 등이 학업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도정임, 2017). 긍정적 대학생활 적응은 적극적, 능동적 자세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인선, 2016). 김옥태, 이승희(2011)는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하며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높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적인 대학생활적응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현대무용 전공대학생들의 전공만족,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준비행동이 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조적 관계 살펴봄으로써 현대무용 전공 대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동시에 현대무용 전공생들의 진로준비행동 대한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그들의 특성과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진로준비행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결정을 위한 상담과 진로지도 전략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이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전공만족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2018년 10월 19일에서 11월 16일까지 서울경기, 전북, 대구지역 현대무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확률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23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결측값을 갖는 31명의 설문지를 제거하고 최종 19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48	24.1
	여	151	75.9
학년	1	73	36.7
	2	48	24.1
	3	41	20.6
	4	37	18.6
경력	3년 미만	29	14.6
	3년~5년 미만	59	29.6
	5년~7년 미만	60	30.2
	7년 이상	51	25.6
계		199	100

2. 조사도구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며, 연구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항목 3문항, 전공만족 18문항, 대학생활적응 12문항, 진로준비행동 13문항 등 총 4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문항의 척도 구성은 전혀그렇지않다(1점)에서 매우그렇다(5점)의 Likert 5점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2. 질문지의 구성내용

변인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배경 변인	인구통계학적특성	성별, 학년, 경력	3
		교과수업만족	7
독립 변인	전공만족	전공인식만족	6
		관계만족	5
매개 변인	대학생활적응	대학적응	5
		사회적응	4
		학문적응	3
종속 변인	진로준비행동	탐색행동	6
		준비행동	7
		전체	46

1) 전공만족

전공만족 척도는 하혜숙(2000)이 개발하고 조미수(2014)가 무용전공 대학생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설문지로,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812~.881인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교과·수업만족, 전공인식만족, 관계만족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척도는 Baker와 Siryk(1989)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최묘선(2018)이 12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무용전공 대학생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813~.897인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대학적응, 사회적응, 학문적응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인 6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척도는 김봉환(1997)이 개발하고 김지혜(2011)가 무용전공대학생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설문지로,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733~.816인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탐색행동, 준비행동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는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를 분석에서 제외시킨 후, SPSS 23.0 version을 이용하여 코딩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코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AMOS 23.0 version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델분석, 제안모델분석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측정모델분석

이 연구모델에 사용한 변수들 간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3을 이용하여 측정 모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델분석을 위한 변수의 투입은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인 교과수업만족, 전공인식만족, 관계만족의 경우에는 문항을 측정변수로 투입하였고,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준비행동 변수는 하위요인을 항목합산(item parceling)을 통해 측정변수로 투입하는 모델로 작성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단일차원성을 저해시키는 변수는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에서 5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측정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χ^2 값과 함께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하게 평가하는 CFI(comparative fit index), 모형의 간명성을 결합하여 측정된 TLI(tucker-lewis index), 모형의 간명성과 적합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그리고 잔차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RMR(root mean-square residual)을 제시하였다. CFI, TLI는 일반적으로 .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하며, RMSEA는 .1이하, RMR는 .05이하의 기준으로 하였다. 측정모델 분석 결과 $\chi^2=679.686(df=122, p=.000)$, CFI=.890, TLI=.892, RMR=.038, RMSEA=.088로 나타나 구조모형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모든 측정변수에 대한 집중타당성 평가는 표준화계수가 0.6이상, 개념신뢰도(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값이 0.7이상,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5이상이 되어야 한다(Bagozzi & Yi, 1988). 그리고 각 연구단위에 대한 판별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이 모든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한다(Fornell & Larcker, 1981). <표 4>를 보면,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전공인식만족과 관계만족 간의 상관계수인 0.708이고, 이를 제곱하면 0.501로 모든 AVE값이 이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은 확보한 것이 된다. AVE값 계산결과 .573~.670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은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적 신뢰도 평가결과 모든 변수들의 Cronbach α 값은 .6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모델분석결과

변수명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측정오차	개념신뢰도	AVE	Cronbach α
교과수업 만족	전공만족7	1.000*	.744	-	.281	.902	.651	.871
	전공만족6	1.268	.873	.061	.174			
	전공만족5	1.198	.777	.064	.327			
	전공만족2	1.034	.720	.060	.345			
	전공만족1	.866	.631	.058	.393			
전공 만족	전공만족18	1.000*	.783	-	.266	.889	.619	.840
	전공만족17	1.042	.759	.055	.337			
	전공만족16	.965	.788	.049	.241			
	전공만족15	.922	.705	.062	.363			
	전공만족14	.772	.606	.053	.435			
관계 만족	전공만족12	1.000*	.662	-	.371	.848	.652	.772
	전공만족11	1.105	.762	.076	.255			
	전공만족10	1.105	.774	.075	.236			
대학생활 적응	대학적응	1.000*	.784	-	.169	.798	.573	.676
	사회적응	.848	.593	.069	.359			
	학문적응	.918	.583	.076	.443			
진로준비 행동	탐색행동	1.000*	.764	-	.260	.802	.670	.700
	준비행동	.864	.707	.088	.273			
적합도		$\chi^2=679.686, df=122, p=.000, CFI=.890, TLI=.892, RMR=.038, RMSEA=.088$						

표 4. 상관관계분석결과

구분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교과수업만족	전공인식만족	관계만족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
교과수업만족	1.00				
전공인식만족	.693	1.00			
관계만족	.569	.708	1.00		
대학생활적응	.656	.677	.569	1.00	
진로준비행동	.536	.381	.310	.463	1.00

2. 인과관계 검증결과

이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는 χ^2 , CFI, TLI, RMSEA, RMR 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chi^2=679.686(df=122, p=.000)$ 로 자료와 모형이 일치하다는 가설을 기각시켰으나 χ^2 는 표본의 크기와 측정변수의 수에 민감한 지수이므로 CFI, TLI의 값을 살펴본 결과, CFI는 .890, TLI는 .892로 나타나 비록 .9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MSEA는 0.088, RMR는 0.038로 양호한 모형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검증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총 7개 가설 중 4개 가설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수업만족($t=5.250, p=.000$)와 전공인식만족($t=4.384, p=.000$)은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반면 관계만족($t=1.770, p=.077$)은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교과수업만족과 전공인식만족이 높으면 대학생활적응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t=2.538, p=.011$)과 교과수업만족($t=5.413, p=.000$)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가설 4>와 <가설 5>는 채택되었다. 반면 전공인식만족($t=-.650, p=.516$)과 관계만족($t=-.371, p=.710$)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6>와 <가설 7>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과 교과수업만족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가설검증결과

가설	경로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S.E	C.R.	p값
가설1	교과수업만족 → 대학생활적응	.299	.340	.057	5.250	.000**
가설2	전공인식만족 → 대학생활적응	.281	.352	.064	4.384	.000**
가설3	관계만족 → 대학생활적응	.122	.127	.069	1.770	.077
가설4	대학생활적응 → 진로준비행동	.267	.230	.105	2.538	.011*
가설5	교과수업만족 → 진로준비행동	.457	.446	.084	5.413	.000**
가설6	전공인식만족 → 진로준비행동	-.058	-.062	.089	-.650	.516
가설7	관계만족 → 진로준비행동	-.034	-.030	.092	-.371	.710

제안모델 적합도 $\chi^2=679.686, df=122, p=.000, CFI=.890, TLI=.862, RMR=.038, RMSEA=.088$

* $\alpha.05, **\alpha.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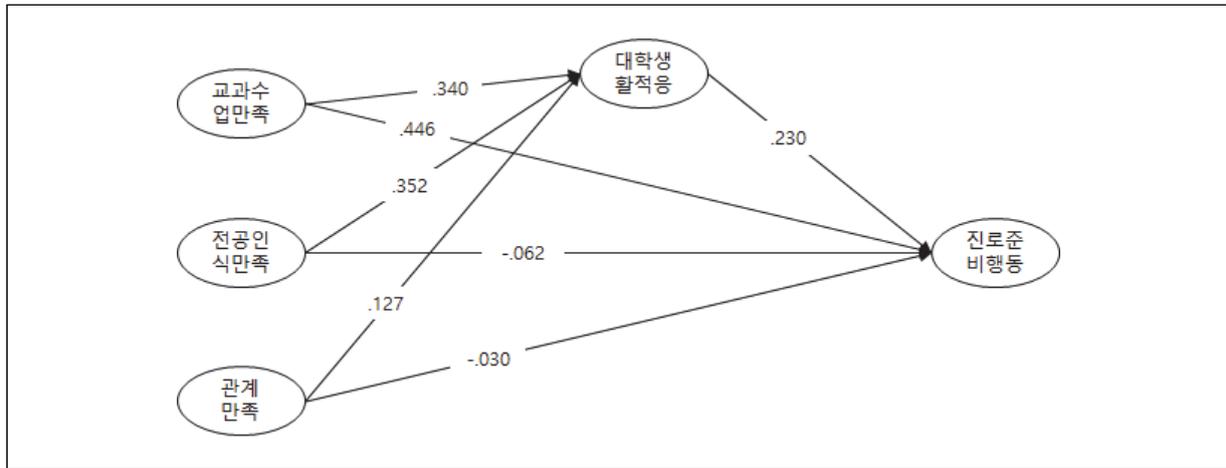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3. 매개효과 검증결과

이 연구에서는 교과수업만족<가설 8>, 전공인식만족<가설 9>, 관계만족<가설 10>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서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비표준화회귀계수값과 표준오차값 그리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비표준화회귀계수값과 표준오차값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Sobel test의 계산식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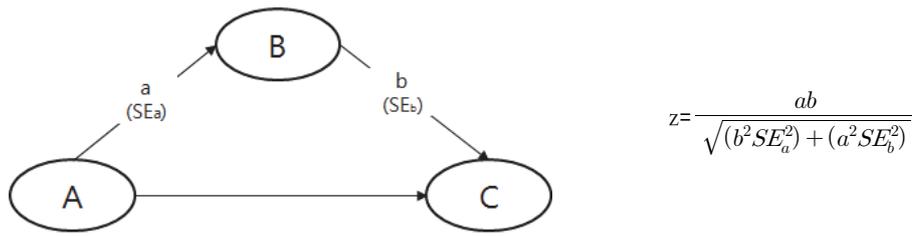


그림 2. Sobel test 계산식

〈그림 2〉의 계산식을 대입한 결과, 교과수업만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z=2.288, p=.022$), 교과수업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부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공인식만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 역시 매개효과가 있으며($z=2.200, p=.027$), 전공인식만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으므로 완전매개효과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관계만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1.451, p=.146$).

표 6. 매개효과검증(sobel-test)

구분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오차 (S.E)	<i>z</i>	<i>p</i>
가설8	교과수업만족 ➡ 대학생활적응	.299	.057	2.288	.022*
	대학생활적응 ➡ 진로준비행동	.267	.105		
가설9	교과수업만족 ➡ 진로준비행동	.457	.084	2.200	.027*
	전공인식만족 ➡ 대학생활적응	.281	.064		
	대학생활적응 ➡ 진로준비행동	.267	.105		
가설10	전공인식만족 ➡ 진로준비행동	-.058	.089	1.451	.146
	관계만족 ➡ 대학생활적응	.122	.069		
	대학생활적응 ➡ 진로준비행동	.267	.105		
	관계만족 ➡ 진로준비행동	-.034	.092		

* $p < .05$

IV. 논 의

이 연구는 현대무용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고,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전공만족과 대학생활적응의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인 교과수업만족, 전공인식만족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만족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전공만족의 하위변인으로 전공의 교과내용에 대한 교과수업만족, 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전공인식만족, 교수-학생 간의 관계에 대한 관계만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정임(2017)의 연구에서 교과만족, 전공인식만족, 관계만족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이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 해주고 있다. 남자간호대생을 대상으

로 한 김지희, 임정희 (2016), 전체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송윤정(2014), 경호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창기, 한승훈, 김병찬, 최봉준, 이권호(2014)의 연구에서도 전공에 만족하는 대학생이 불만족하는 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이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무용전공대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대학적응을 잘 한다는 김현숙(2003)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관계만족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정연(2010)은 한국무용은 수업에 교사가 시키는 것만을 수행하는데 반해, 발레와 현대무용은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고난이도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별 기술연습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한국무용과 발레는 국·시립단체가 상대적으로 많고 교수의 영향력이 필요한 장르이다. 이러한 한정된 국·시립 단체의 수와 현대무용 전공생들의 특성상 타 장르와 비교하여 약한 교수의 영향력 때문에 교수-학생 간의 관계에 대한 관계만족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김희정(2008)은 무용전공 대학생들에게 획일화된 연습 방법보다는 전공별 무용수의 특성을 고려한 각기 다른 심리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전공교과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공지식과 기술수준을 고르게 배양해주는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와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과내의 분위기, 교수, 학생 개개인의 성향 등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 질 수 있어 이 연구로는 구명의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질적연구 방법을 병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인 교과수업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인식만족, 관계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연풍, 임종식, 양춘호(2016)의 연구에서 전공만족의 하위변인 모두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체육계열 대학생, 전체 대학생, 보건계열 대학생, 경호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권혁진, 2010; 박대성, 2014; 백경화, 유경호, 2011; 안형준, 2013; 정정연, 2013)에서도 두 변인간의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김영현(2013)은 경호전공과 무도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연극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김은선(2017)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은정, 김효진, 박은비, 박주희, 정민주, 정정희(2018)의 연구에서도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 결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윤정옥, 문광선(2018)의 연구에서 두 변인간의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고 하면서도,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대학생들의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정적인 관계 및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각 전공마다 그 차이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전공에 따라 다르게 긍정·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대무용 국·시립 단체의 부족과 현대무용 전공생들의 성향으로 인해 전공인식만족과 관계만족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교과수업만족이 전공만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고 교과수업만족은 진로를 준비하는 데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수업만족은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유도하고 유지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인이므로 무용지도자는 학생들이 교과수업에 만족할 수 있도록 수업전반에 대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무용지도자들은 종종 학생들에게 '무용에서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학교에

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교과수업일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지혜(2011)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준비행동의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고하고 있어 이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황대향, 박혜영(200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학생이 대학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높다고 보고하여 이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구철희(2018)는 체육계열 전공 대학생이 학교에 애착을 가질 경우 특유의 위계를 가지고 있는 선·후배, 사제지간 등의 관계 형성을 잘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체육계열 전공의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진로정보 수집과 진로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할 수 있게 되며,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또한 주변 관계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준비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적응이 높으면 진로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하였다.

최인선(2016)도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의 과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 행동이 곧 취업성취가 되기 때문에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이 진로준비행동을 높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송윤정(2014)은 대학생활의 부적응은 전공에 대한 흥미 부족과 취업 준비성 결여로 진로선택에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졸업 후에도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거나, 직업과 업무환경에 적응이 어려워 잦은 이직을 하는 등 사회적 측면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하였다.

현대무용 전공자들은 전공과 유사한 취업, 자신의 적성과 진로의 만족이 한국무용, 발레 전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김주희, 2004). 이것은 현대무용 전공생들이 상대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된 대학생활적응은 직업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용지도자들은 현대무용 전공생들이 보다 흥미와 애착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적응 요인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부적응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지도를 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과수업만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은 부분매개효과, 전공인식만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완전매개효과, 반면, 관계만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무용 전공생의 교과수업만족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대무용 전공생의 교과수업만족이 증가하면 학교생활적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것이 진로준비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윤경(2011)이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졸업 후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여 이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김미미(2007), 송윤정, 조규판(2015), 이연수, 정한결(2012)도 전공에 대한 만족의 차이는 곧 학과 적응의 문제로 연결되고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업 및 학과에 대한 만족은 곧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대무용 전공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돕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증재할 필요가 있다. 현대무용 전공생의 특성에 맞는 증재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하여 원활하

고 긍정적인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무용 전공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돕고 더 나아가 졸업 후에도 무용계 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현대무용 전공생의 전공만족,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전북, 대구지역의 무용전공 대학생들로서 최종 199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처리는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3.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모델분석, 상관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전공만족과 대학생활적응의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인 교과수업만족, 전공인식만족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만족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인 교과수업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인식만족, 관계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무용 전공생의 특성에 맞는 중재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하여 원활하고 긍정적인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대무용 전공생들의 특성과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진로결정을 위한 상담과 진로지도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현대무용 전공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와 효과적인 진로준비행동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교과수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무용학과는 매년 많은 무용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으나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조미수, 노정식, 2014). 이에 국·시립단체의 확대와 무용전공생들의 다양한 진로개척과 확장을 위한 범무용계의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은희(2017).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구철희(2018). 체육계열 전공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창기, 한승훈, 김병찬, 최봉준, 이권호(2014). 경호전공 대학생의 무도학습 참여양식이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1, 97-121.
- 권혁진(2010). 체육계열 대학생의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규진(2015).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미래성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김미미(2007).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학과만족 및 진로에 미치는 영향 : 사회과 심화선택과목 '법과 사회'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봉환(1997). 大學生의 進路決定水準과 進路準備行動의 發達 및 二次元的 類型化.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영현(2013). 전공만족과 무도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김옥태, 이승희(2011). 체육계열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0(3), 53-67.
- 김은선(2017). 학점은행제 연극전공자의 진로장벽,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김주희(2004). 무용전공별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김지혜(2011). 무용전공대학생의 성취목표가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지혜, 한광령, 김기섭, 김우석(2011). 무용전공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4(3), 49-66.
- 김지희, 임정희 (2016). 전공만족도가 남자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 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6(1), 91-100.
- 김하연(2018). 무용전공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현숙(2003).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36, 5-18.
- 김희정(2008). 무용전공학생들의 전공별 정신력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노형진(2003). 『SPSS/Amos에 의한 사회조사분석』. 서울: 형설출판사.
- 도정임(2017). 무용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4(4), 69-82.
- 박대성(2014). 보건계열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2(10), 415-423.
- 박중길, 이환(2003). 진로자기효능감이 무용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문화과학연구, 13, 1-11.
- 박현정(2015). 무용과 졸업생의 취업준비과정 및 직업만족도 분석. 무용역사기록학회지, 37, 81-99.
- 백경화, 유경호(2011). 경호학전공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9, 115-137.
- 백사인(2011). 대학 졸업반 학생의 취업장애 인식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2), 91-109.
- 송윤정(2014).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송윤정, 조규관(2015).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학습몰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355-374.
- 송정명, 유동현(2018). 체육전공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에 따른 전공만족, 학습몰입,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7(3), 209-222.
- 송정연(2010). 무용전공자의 행동유형에 따른 학습양식 선호도의 차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형준(2013).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어윤경(2011). 청소년기 진로상담 만족도, 대학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분석:대학 전공선택 요인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2(5), 1793-1811.
- 연합뉴스(2019. 1. 21.). 올해 대학졸업 예정자 10명중 1명만 정규직 취업 '성공', <https://news.v.daum.net/v/20190121080910726?rcmd=m>.
- 오연풍, 임종식, 양춘호(2016). 무용전공 대학생의 학과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4(4), 253-261.
- 윤은지(2018. 2. 6.). 대학생 10명중 6명 '졸업후진로' 고민.. 교육전문 신문 <베리타스 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835>.
- 윤정옥, 문광선(2018). 대학 태권도선수들의 전공만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6(2), 699-707.
- 이등재(2004).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성격체감, 성교정관념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병훈(2017). 체육계열 수험생들의 사회적지지가 진로태도성숙 및 진학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승규(2016). 체육교육 전공자들의 고용불안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연수, 정한결(2012). 무용전공 대학생의 예술경영 수업만족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26**, 17-35.
- 이은정, 김효진, 박은비, 박주희, 정민주, 정정희(2018).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진로탐색 효능감,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18**(1), 263-278.
- 이재(2017. 3. 16). 대학생 10명 중 6명 진로고민 이유는 “나를 몰라라”,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0819>.
- 이주연(2011).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7**, 215-230.
- 이현정(2010). 무용전공자들의 사회화와 성취목표성향이 진로결정수준 및 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광원(2012). 진로의사결정 타협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도의 차이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장선철(2003). 대학생의 진로결정유형화와 개인, 인지 변인간의 관계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정정연(2013). 체육대학생의 전공 및 학과만족이 진로포부 및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미수(2014). 무용전공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전공만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조미수, 노정식(2014). 무용전공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전공만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1**(1), 53-66.
- 최묘선(2018).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최인선(2016).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만족,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영수(2019. 1. 14.). 청년실업: 왜 해결이 어려운가?, 열려있는 정책 플랫폼,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963.
- 홍성주(20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가구소득, 전공특성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황매향, 박혜영(2005).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직업능력개발연구, **8**(2), 157-176.
- Bagozzi, R. P. and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ker, R. W. & Sirky, B. (1984) Mean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9-189.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February), 39-50.
- Hair, J. F. Jr.,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 Logue, C. T.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est t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Under review,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just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Contemporary Dance

Lee, Joon-Mo *Chonbuk National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just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contemporary dance. The subject was a population of 230 university students during the period of time Oct. 19, 2018 to Nov. 16, 2018. The data on 199 students were used for actual analyses and data were processed with SPSS 23.0 for Window and Amos 23.0 for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major satisfaction had positive effects on college adjustment. Second, major satisfaction had positive e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college adjustment had positive e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th, college adjustment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 contemporary danc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justmen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논문투고일: 2019. 05. 31
논문심사일: 2019. 07. 11
심사완료일: 2019. 07. 11